

제9강 일야구도하기 II

(1교시)

◆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시선으로

▲ 말에 대한 진지한 성찰

고북구 장성을 나온 연암 일행은 다시 물가에 다다르고 말을 타고 물을 건너며 다시금 연암은 도를 깨닫는다. 정덕을 위한 이용후생의 시선으로 조선의 말 다루는 법에 대한 여덟가지 위태로움을 논한다.

첫 번째 위태로움: 옷소매는 넓고 한삼(소매 끝에 붙여 드리우는 흰 형질) 역시 긴 탓에 두 손이 휘감겨 고삐를 잡거나 채찍을 휘두를라치면 거추장스럽다.

두 번째 위태로움: 패션의 거추장스러움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견마를 잡히게 한다. 이에 고삐를 잡은 자가 항상 말의 한쪽 눈을 가려서 말이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세 번째 위태로움: 사람과 말이 마음이 통하지 않아 마부는 자신이 편한 땅을 디디고 말은 늘 구석진 속으로 몰아넣는다.

네 번째 위태로움: 말의 한쪽 눈이 사람에게 가려져 넘어지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채찍을 함부로 사용한다.

다섯 번째 위태로움: 조선의 안장과 뱃대끈의 무게로 인해 한 필의 말이 두 필의 힘을 쓰는 격이다.

여섯 번째 위태로움: 사람이 오른편을 외편보다 선호하여 사용하듯 말도 그러한데 이를 못하게 막는다.

일곱 번째 위태로움: 말이 늘상 채찍을 받다 보니 유독 오른편 다리가 아파 사람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채찍으로만 다스리려 한다.

여덟 번째 위태로움: 벼슬의 권위를 왼편으로 견마를 잡히는 것으로 드러내거나 긴 고삐로써 위험을 보이려 하는 것은 불편을 스스로 초래하는 격이다.

말에 관한 이와 같은 위태로움은 단지 이용후생의 실용적 관점만이 아니다. 연암은 무엇보다 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즉 말과 사람의 관계의 입장에서 위태로움을 이야기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덕을 위한 이용후생의 시선이라 할 만이다.

▲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

연암은 눈을 감은 것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람이 오직 눈 하나만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위태로움이라고 말한다. 물론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세상과 소통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방식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라고 믿는 것이 진짜 위태로움이다.

깊은 밤에 물을 건너며 수역이 주부한테 말한다.

“옛사람이 위태로운 것을 말할 제 ‘소경에 애꾸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물가에 섰는 것’이라 했지요. 실로 오늘 밤 우리가 그같은 꼴이구려.”

연암이 이렇게 대꾸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나, 위태로움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하긴 어렵소”(연암)

“어째서 그렇단 말씀이오?”(수역)

“소경을 보는 자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 소경을 보고 스스로 그 마음에 위태로이 여기는 것이지, 결코 소경 자신이 위태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소경의 눈에는 위태로운 바가 보이지 않는데, 대체 뭐가 위태롭단 말이오?”

연암의 비슷한 논거.

1. 소경이 비단옷을 입고 가는 것과 눈뜬자가 밤에 비단옷을 입고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2. 코를 고는 사람은 자신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옆 사람들은 모두 듣는다. 반면 자기만 들리는 소리는 그야말로 자신에게만 들리고 남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와 같은 연암의 물음은 사유를 다양하게 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따라가지 말라는 일종의 수수께끼이다. 물가에 있는 소경의 위태로움은 소경 자신의 위태로움이 아니라 바로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태로움일 뿐이다. 물론 소경 역시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으나 소경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위태로움을 판단할 뿐이다.

(2교시)

◆ 내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 일야에 구도하며 깨닫다.

→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나?

고북구 장성을 나와 물을 건너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요동 별판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절대 성난 소리로 울지 않아.”

연암은 요하는 울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라 한다. 즉 낮에는 강물을 볼 수 있으니까 위험을 직접 보며 별별 떠느라 눈이 있다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며 한밤중에는 강을 건너느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어 오로지 듣는 것에만 쏠리고, 그 바람에 귀는 두려워 떨며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연암의 사유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식의 관념론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연암의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는 근대의 학문이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여 바라보기 때문이다. 연암이나 근대 이전의 사유는 주관과 객관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연암의 실용적인 사유와 마음의 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말에 관한 실용적인 사유에서 조차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보았다면 말의 입장에서 실용성을 논한 것은 사실 설명되기 어렵다.

시각과 청각이 위험한 것은 객관과 분리된 채로 자기만의 세계에 얽매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극한 마음의 경지인 명심은 주관과 객관의 내재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러한 관계의 장이 발생하면 분리됨이 없이 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따라서 명심(冥心)은 사이 존재(제際)의 다른 이름이다.

▲마침내 열하!

열하에 가까워지면서 수많은 조공 행렬이 보인다. 모두 건륭제의 70세 생일인 8월 13일에 맞추어 열하의 행궁으로 가는 행렬이다. 각종 동물들을 태운 수레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어 연암은 이 인상적 행렬을 보고 별도로 <만국진공기>라는 글을 썼다.

호기심 많고 눈설미 날카로운 연암이지만 열하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구경거리에도 그도 정신이 없다. <만국진공기> 후기에서 그는 “나의 평생에 꾀이한 구경은 열하에 있을 때만 한 것이 없었으나 그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많고, 글로는 능히 형용할 수 없어서 모두 빼놓고 기록하지 못하니 한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 잠과 꿈의 ‘사이’

무박5일을 열하까지 오느라 연암은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숙박을 할 곳에 도착하려면 아직 더 가야한다. 그러다보니 하인들이 가다가 발을 멈추면 모두 서서 졸고 있다. 연암 역시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 몽롱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다.

눈을 뻘히 뜨고 사물을 보긴 하나, 금새 기이한 꿈에 잠겨버리곤 한다. 포근포근 잠이 영기고 아롱아롱 꿈이 깊어갈 제는 천상의 즐거움이 그 사이에 스며 있는 듯 달콤하기 그지 없었다. 혹은 하늘로 솟구칠 듯 머릿속이 맑아져서, 그 묘한 경지가 견줄 바가 없었다. 이른바 취리의 건곤이요, 몽중의 산하였다. 바야흐로 가을 매미 소리가 가느다란 실오리처럼 울려퍼지고, 공중에선 꽃들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깊고 그윽하기는 도교의 내관과 같고, 놀라서 깨어날 때는 선가의 돈오와 다름이 없었다. 여든 한 가지 장애가 순식간에 걷히고, 사백네 가지 병이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이런 때엔, 비록 추녀가 높고 고대광실에 한 자나 되는 큰 상을 받고 아릿다운 시녀 수백 명이 시중을 든다 해도 차지도 덤지도 않은 온돌망에서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베개를 메고,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이불을 덮고, 깊지도 얇지도 않은 술잔을 받으면서, 장주도 호접도 아닌 그 사이에서 노니는 재미와는 결코 바꾸지 않으리라.

말 위에서 곧 굴러 떨어질 듯 고개를 떨구다가 깜짝 놀라 잠이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는 길가의 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맹세한다.

“내 장차 우리 연암 산중에 돌아가면, 일천일 하고 하루를 더 자서 옛 희이선생보다 하루를 이길 것이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량이면, 내 결단코 너와 같이 돌이 되고 말테다.”

이런 다짐을 하며 새벽에 열하 직전의 숙소에 도착한다. 하인이 밥을 가져왔으나 심신이 피곤해 수저조차 무겁고 말도 하기 싫어 연암은 식사를 포기하고 청심환 한 개를 소주와 바꾸어 술로 피로를 달랜다. 마시자마자 곧 취하여 스프르르 베개를 끌어당긴다.

▶ 용어 해설

- 팔십이난: 중생이 도를 통하기에 여든한 가지의 장애가 있다. 불가에서 나온 말.
- 사백사병: 지,수,화,풍 이 각기 일백여덟 가지의 병이 있다 한다. <유마경>에서 나온말.
- 장주도 호접도 아닌 꿈나라로 노니는: <남화경>에서 나온 몇 구절.
- 희이 선생: 송의 은사 진단. 희이는 호요, 자는 도남. 그는 한 번 잠들면 천 날씩 오래 잤다고 한다.